

치 사

진관사 국행수륙대재가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제126호로 지정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. 종단 차원에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었으며, 불교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국가와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기념비적인 일이었습니다. 오늘 1주년을 기념하며 시연과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.

수륙재는 우리 문화 중에서 세계에 자랑할 만한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입니다.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유주, 무주의 모든 중생들이 행복해지는 불교의식으로 고려시대부터 천 년 동안이나 전승되어온 장엄하고 성대한 의례입니다.

특히 진관사 국행수륙재는 조선 건국과 함께 국가와 왕실 주도로 거행하였던 국가적 의식이었습니다. 최근에는 조선시대 국행수륙재를 거행했던 수륙사가 발굴되어 그 역사적 가치를 증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. 장엄한 불교의례가 진관사라는 사찰에서 600여년 이상 전통을 이어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. 또한 그 가치가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남아 우리 국민 모두가 아끼고 지켜야 할 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기도 합니다.

오늘 학술대회는 진관사 국행수륙대재의 한국문화적 위상을 알려내는 자리입니다. 무형문화유산에 저명한 학자들이 참여하여 발표와 토론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아무쪼록 이 자리가 진관사 수륙대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전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으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.

오늘 수륙재 시연과 학술세미나에 발표와 토론을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,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정성을 다한 진관사 주지 계호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합니다. 더불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.

불기2558년 9월 23일

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